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익숙함과 새로움 사이, 코헨의 관광객 유형(Cohen's Tourist Typology)

원문 주소

https://www.gklibrarykor.com/11312/

PDF 미리보기 ·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.

같은 나라로 여행을 떠나도 사람마다 여행의 모습은 크게 다릅니다. 어떤 사람은 깃발을 든 가이드를 따라 정해진 명소를 돌고 한국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습니다. 또 어떤 사람은 배낭 하나만 메고 현지인의 집에 머물며 그들과 같은 밥을 먹습니다. 둘 다 같은 여행자인데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고르는 것일까요? 이 차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‘코헨의 관광객 유형(Cohen's Tourist Typology)’입니다. 코헨의 관광객 유형이란 쉽게 말해 ‘여행자가 익숙함과 새로움 가운데 무엇을 더 원하는지에 따라 관광객을 네 가지로 나눈 분류’를 의미합니다.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사회학자 에릭 코헨(Erik Cohen)이 1972년 학술지 「소셜 리서치(Social Research)」에 실은 논문 「국제 관광의 사회학을 향하여(Toward a Sociology of International Tourism)」에서 처음 제시했습니다. 본 자료에서는 이 분류의 바탕이 되는 익숙함과 새로움의 개념부터, 네 가지 관광객의 특징, 일상에서 찾아보는 예시, 그리고 이 이론이 남긴 의미와 한계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. 익숙함과 새로움으로 나눈 네 가지 여행자 익